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훈담별 울산을 지켜줘!
수상내역	장려상(울산경제진흥원장상)
작가	이슬기,전인규,김경민
공모분야	시나리오
주요내용	<p>숫대가 부러져 올라가지 못한 호수룡의 분노로 마을의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호법룡의 쌍둥이 아들은 하늘과 땅에서 각각 길러진다.</p> <p>훈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사는 담이와 함께 이무기를 물리치려 한다. 훈, 담, 별이는 이무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의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러 떠난다.</p> <p>여행을 통해 얻은 물건들로 의식을 치르려는 순간, 이무기가 나타난다.</p> <p>훈이, 담이가 이무기와 싸우는 도중에 별이가 신성천에 물을 부어 제의의 마지막 의식을 실시한다. 이무기는 발악하지만 결국 쓰러진다.</p> <p>이무기는 봉인되고, 세상은 다시 깨끗해진다. 사람들은 훈, 담, 별이를 기리기 위해 제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울산 물당기기의 시초가 된다.</p>

훈담별 울산을 지켜줘!

-물당기기 전설의 비밀을 찾아서-

어느 해의 첫 봄 아침, 곳곳에 푸른빛이 보이지만 아직은 제법 쌀쌀하다. 울산 태화강변에서는 해도 뜨지 않은 첫새벽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저씨: 어이, 바쁘게 움직이라고! 호법룡님의 솟대는 이쪽에 세워야 해.

둘레가 한 아름은 될 것 같은 기둥이 하나 둘 세워지고, 그 끝에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꿈틀거리는 모양의 새가 조각되어 있다. 크나큰 평상에 음식이 하나 가득 놓이고, 사람들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힘센 장정들에 의해 솟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경건하게 절을 하는 가운데 봄의 첫 햇빛과 함께 동쪽 하늘에서 용신들이 강림한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의식, 태화강변에서는 매년 초봄마다 신을 부르는 제의를 지낸다. 정교한 장식이 수놓아져 있는 네 개의 큰 솟대를 세워 용신을 부르고, 춤과 노래를 통해 용신들에게 그 해의 안녕을 비는 것이다. 용신들은 솟대를 통해 땅에 강림하여 인간들을 보살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년 이루어지는 제의를 통해 땅에 내려온 호법룡은 물가에 서 있는 어떤 여인을 보고, 순간 호법룡은 감정의 움직임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다가간다.

호법룡: 당신은…….아름답군. 이름이 무엇인가.

도화: (다소곳하지만 부끄럼 없이) 용이시여, 저는 강의 정령 도화라고 합니다.

감정의 교류를 느낀 호법룡과 도화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호법룡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로부터 몇 달, 도화의 배는 불러오고 도화는 쌍둥이를 낳는다. 도화는 두 아들의 이름을 훈이와 담이라고 짓는다.

다음 해, 제의를 통해 내려온 호법룡은 자신의 아이들을 만난다. 반신반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둘을 흐뭇하게 보던 호법룡, 그 옆에 호수룡이 등장한다.

호수룡: (비웃는 듯 한 표정으로) 고작 인간 따위에게 감정을 쏟다니,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호법.

호법룡: (얼굴을 굳히며) 호수,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호수룡: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다. 자신의 신성을 저런 미개한 것에게 나눌 정도로 용신이 하찮아진 건가?

호법룡: 말을 조심해라 호수. 너는…….모든 것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호수룡: 그게 어쩔다는 것이냐. 저 숲대의 인간들도 모두 우릴 위해 존재하고 있다. 설사 우리가 저것들을 없애버린다 해도 저들은 공포에 떨며 우릴 더욱 우러를 것이란 말이다.

호수룡은 그 말과 함께 숲대를 흔들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호법룡은 그걸 막으려 하지만 겨우 궤도만 비틀었을 뿐이고, 호수룡의 공격은 그 자신의 숲대에 명중하고 만다. 숲대는 부러지고 호수룡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 버려 당황한다. 제의가 끝날 시간이 되자 다른 용신들은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가지만 호수룡은 올라가지 못한다. 자신이 올라가지 못하게 된 탓이 저 인간들과 호법룡 때문이라고 생각한 호수룡은 난동을 피운다.

호수룡: (분노에 가득 차) 이놈들! 네놈들이 감히 날!(사방을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사람들: (도망치며) 까아아악! 용이 분노하셨다! 모두 도망쳐야 해!

호법룡: 진정해라 호수룡! 인간들은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호수룡: 닥쳐라 호법! 네놈도 똑같은 뿐이다.

호수룡의 마구잡이식 공격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그 와중에 도화와 훈이에게도 한 줄기의 공격이 닿는다.

도화: 아악!

놀란 호법룡은 호수룡에게 일격을 먹인 뒤 곧장 도화에게 달려가 도화와 아이들의 용태를 살펴본다.

도화: 흐, 흐흑. 훈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호법룡: 걱정하지 마라 도화, 훈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하늘의 기운이면 아이를 능히 치료할 수 있다. 담이는 다친 곳 없으니 땅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훈이를 멋지게 키우겠다.

그 말과 함께 호법룡은 훈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 문은 닫힌다. 호수룡은 호법룡에게 당한 상처에 신음하며 호법룡과 인간들을 저주한 뒤 사라진다.

호법룡: 크윽…….내 꼭 복수하리라. 기다려라 호법, 기필코 내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제의를 열지 않게 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태화강의 물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백 년 후, 이 세상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다. 모든 강물은 메말라 실개천만이 흐를 뿐이고, 호수는 더러워져 냄새를 풍긴다. 땅은 짝짝 갈라지며 식물마저 시들시들하다. 사람들은 피폐해져만 가고 인심은 점점 각박해진다.

담이는 올해로 백 살을 맞았다. 울산의 유지로서 항상 공정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그이지만 요즘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얼마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담이는 어머니인 도화에게 이유를 물으러 간다.

담이: (한숨을 쉬며) 어머니, 요즘 들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화: (얼굴이 굳어지며) 이제는 말 할 때가 되었나 보다. 물에 이어 땅의 정기마저 사라지고 있어. 아무래도 그것이 깨어난 것 같구나.

담이: 무엇 말입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도화는 담이에게 백 년 전에 있었던 호수룡의 난동에 대해 알려준다. 호수룡은 이무기가 되어 숨었으며, 담이에게는 원래 훈이라는 이름의 하늘에서 자라는 쌍둥이 형이 있고, 용신의 피를 이은자만이 이무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도화: ...그렇게 된 것이다.

담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도화: 그래. 그나저나 이 어미도(말을 맺지 못하고 쓰러진다)

담이: 어머니, 어머니!

겨우 정신을 차린 도화는 담이에게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달라고 한다. 담이는 어머니인 도화마저 아프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담이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여행 준비를 한다.

별이: 할아버지!

담이: (생각에 잠겨 듣지 못한다)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라…….강물을 깨끗하게. 먼저 제의를 지내던 태화강을 깨끗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 곳에서 다시 제의를 지내 아버님과 형님, 그리고 다른 용신들을 불러오는 거야. 강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물꼬를 터야 할 텐데.

별이: 할아버지, 할 아 버 지!!

담이: (깜짝 놀람, 별이를 보고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며) 오오, 우리 손녀딸 왔구나.

별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할아버지. 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담이: 허허, 아무것도 아니란다. 별이는 그냥 할아버지 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몸은 괜찮니?

별이: 응! 기침이 조금 났었는데 이젠 괜찮아. (손을 들어 보이며 담이에게 반지를 보여준다) 증조할머니가 이거 줬거든.

담이: 아니, 이걸 어머니의 반지가 아니니? 이 반지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게로구나.

별이: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거든! 내가 매일매일 씻어서 그래. 그나저나 할아버지, 강이 깨끗해지면 나도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거야?

담이: 허허, 그야 물론이지. 우리 별이도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단다.

별이: 그럼 나도 할아버지 따라 갈래!

담이: 뭐? 안 된다.

별이: 싫어. 나도 갈래. 나 더러운 거 너~무 싫어. 나도 가서 깨끗하게 만들래. 난 자주 씻고 할머니 반지도 있어서 아프지 않단 말야. 할아버지 짐도 안 될게 응? 갈래 갈래갈래.

결국 별이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담이는 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하늘, 훈이는 올해로 10살이 되었다. 하늘에서 지내는 것에 다소 지루함을 느끼는 훈이는 매일 구름 사이로 땅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호법룡이 훈이를 불러 땅으로 내려가라 한다. 훈이는 기뻐하지만 이어지는 호법룡의 말에 안색을 굳힌다. 호법룡은 훈이에게 땅이 황폐해졌고 강이 메말랐으며, 이제는 사람들까지 아프다는 말을 해 주고 아무래도 이무기가 깨어난 것 같다고 말한다. 땅에서 쌍둥이 동생을 찾으라는 말과 함께 신을 봉인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를 주고 호법룡은 훈이를 땅으로 내려보낸다.

훈이: 저만이 이무기를 봉인할 수 있다고요?

호법룡: 정확히는 너와 담이, 즉 용의 피를 이은자들이다. 나를 비롯한 다른 용신들은 이곳에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훈이: 알겠어요 아빠. 그런데 쌍둥이 동생..담이라고 하셨나요? 담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호법룡: 그것은 자연스레 알게 될 거다 훈아. 만남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겨드랑이에 나의 비늘이 돌아 있어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 자, 이제 출발하려무나.

별이와 담이가 출발하려는 찰나 훈이가 땅에 내려온다. 서로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도화가 훈이를 알아보고 감격하여 담이에게 저 아이가 너의 형이라고 알려준다. 담이와 훈이는 도저히 믿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간다는 사실을 듣고서야 이해한다.

담이: 저 아이가, 아니 저 사람이 제 형이란 말씀이십니까?

훈이: 할아버지가 내 동생?

별이: 어…….어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화: (웃으며) 그래. 아무래도 형이 동생을 따라다녀야 할 것 같구나.

훈이는 자신이 이무기를 봉인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도화는 강물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여 강을 다시 흐르게 만들면 이무기가 등장할 것이라 말한다. 물이 깨끗해지면 이무기의 힘이 약해지고, 이를 알아차린 이무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셋은 강물 정화 의식을 열기로 하고, 제의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셋의 여정 앞에 드러난 참상은 끔찍하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강바닥은 메말라 짙게 갈라진 바닥을 보이고 있다. 나뭇잎은 만지면 바스러지며 동물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별이: 할아버지, 훈아. 정말 끔찍해.

훈이: 맙소사……. 내가 생각한 땅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담이: 안타깝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단다. 어서 물건들을 찾자꾸나.

셋은 여러 산에 있는 신성천을 찾아다닌다. 무룡산의 신성천을 어렵게 찾아 뜨고, 물청청의 생수를 뜨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진다.

훈이: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별이도 힘들어하고. 여기서 자고 가자.

담이: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물을 내일까지는 마셔야 하니 오늘은 조금만 마실 수 있도록 하자꾸나.

별이: 아~나 못 씻었는데. 나 몸에서 냄새나는 것 같아 할아버지. 손도 너무 더럽고. 목도 말라 나. 나 못 참아 이런거.

훈이: 조금만 참아 별아.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가운데)

별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히 일어난다) 다 잠들었지? 좋아……. 휴. 난 하루라도 안 씻고는 못 살아. 훈이는 어쩔 저렇게 씻는 데에 관심이 없지? 그래도 물 조금만 쓰고 아껴놔야지. (다 씻고 난 뒤) 아~상쾌해. 이제 자야지. (물병을 엮지른다) 에구머니나! 이걸 어째…….몰라. 그래도 씻었으니까 뭐. 졸립다 잘래.

아침이 밝아오고, 물이 없는 것을 본 훈이는 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낸다. 이에 별이도 훈이에게 씻지 않는다고 맞서고, 담이가 중재하지만 훈이는 혼자 떠나 버린다.

별이: 그럴 수도 있지! 팔에 때나 좀 밀어라! 만날 왼쪽은 가리고만 다니고, 너 옷에서 냄새도 나거든?

훈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너,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물은 혼자 다 써놓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래? 넌 생각도 없냐!

별이: 몰라, 너 알아서 해라! 나는 할아버지랑 물청청에 갈 꺼다.

훈이: 그래. 실컷 가라! 너 같은 여자애랑은 말도 섞기 싫어! (몸을 뒹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담이: 후, 훈아! 아니, 형! ...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만 느는군.

담이는 별이와 함께 일단 물청청에 가고, 훈이는 홀로 신성천에 가서 물을 다시 떠 오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한 병 더 뜬다.

무룡산 밑에서 다시 만난 셋은 화해하고 금줄을 찾으러 떠난다.

별이: (저 멀리서 훈이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훈이가 와.

담이: 그렇구나. 이제 화는 좀 풀렸니?

별이: 화야 예전에 풀렸지. 내가 잘못된 건데 뭘…….미안해서 어찌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담이: 그냥 솔직하게 그땐 미안했다고 말하렴.

훈이: (아직 덜 풀린 듯한 표정으로) 담. 나 왔어. 신성천에 가서 다시 물 떠왔어.

담이: 잘했어 훈아. 우리도 물청청에서 물을 떠 왔지. 별아? 할 말이 있단지 않았니?

별이: (담이 뒤에 숨어서 고개만 배꼽 내밀며) 후...훈아. 그땐 미.....미...

훈이: 미 뭐.

별이: 미..... ..미안했어. 화 풀어.

훈이: (피식 웃으며) 아냐. 내가 미안했지. 심한 말해서 미안해.

별이: 아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는 거야?

훈이: 그럼, 당연하지.

담이: 하하, 보기 좋구나. 자, 이제 금줄을 찾으러 가야지.

훈이: 좋아, 금줄을 향해 떠나 보실까!

별이: 응. 가자!

셋은 제의에 쓰는 금줄을 태화강 근처에서 찾지만, 거대한데다 진짜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게다가 반이 넘게 땅에 파묻혀 있는 줄을 도저히 옮기지 못한다.

담이: (한숨을 쉬며) 이걸.....어떻게 옮기지?

훈이: (한숨을 쉬며) 어떻게 안 옮직이나? (힘을 써 보지만) ...꽁. 도저히 무리야.

별이: 저기 근데, 강 속에서

훈이: 으라차차! ...안 되네.

별이: 내 말 좀 들어 봐!

담이: 그래, 별아.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별이: 응. 예전에 강바닥에 무언가 빛나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어떤 밧줄이었던 것 같아. 혹시 그게 금줄이 아닐까?

훈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 줄이 얼마나 길면 거기까지 가 있겠냐? 그리고 땅 속에 다 파묻혀 있겠지?

별이: 그런가? 그래도 말이야. 한번 가 보자.

훈이: 바보야. 강 밑을 어떻게 파냐?

담이: 그건…….가 보면 알 것 같다. 쉬엄쉬엄 따라오너라.

강에 가 보니 물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보인다. 진흙 속을 뚫다가 훈이가 금줄을 찾아낸다.

훈이: (발로 진흙을 퍽퍽 차다가) 아야! 이게 뭐야!

별이: 괜찮아, 훈아? 많이 아파?

훈아: 아니, 아픈 건 둘째치고, 강에 왜 이런 게...어라? 이게 그건가?

별이: 어머, 어머, 금줄이야! 이것 봐요 할아버지!

담이: 오오, 금줄이 맞구나. 별이 네 말이 맞았어!

금줄을 파내지는 못하지만 제의 때는 쓸 수 있음을 확인한 셋은 세 번째 물건인 솔잎을 찾으러 남산으로 향한다. 그러나 남산의 소나무들이 하나같이 메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허무해한다.

담이: 이걸 어쩔담…….남산의 소나무가 피어내는 솔잎만이 제의에 쓸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훈이: 한 그루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자.

담이: 산을 어느 세월에 뚫진단 말이나. 기왕 온 것 천천히 찾아보자꾸나.

훈이: 담! 시간이 없다구. 여유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되도록 빨리 찾아야지 않겠어?

별이: 맞아. 할아버지는 항상 느려. 너무 천천히만 하는 것 아냐?

담이: 쾅…….그래. 가자, 가.

산을 이 잡듯이 찾은 셋은 정상 부근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위엄 있게 자라는 소나무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그런데 그 순간 화살이 훈이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

술찬: 멈춰! 다음번엔 맞추어 버리겠다.

훈이: (뿔뿔히 떠돌아다니다) 야! 위험했잖아! 네가 뭘데 화살을 쏘!

술찬: 나는 이 소나무의 지킴이다. 설사 네가 하늘의 용이라도 이 나무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말로 할 때 돌아가!

담이: 잠깐, 잠시만. 우리 얘기 좀 들어줄 수 없는가? 우리는 막대한 사명을 띠고 왔다네. 결코 그 나무에 해코지하려고 온 것이 아닐세.

담이는 술찬에게 제의와 이무기에 대해 설명하고, 제의를 열기 위해서는 남산 소나무의 솔잎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술찬은 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자신의 집에 데려간다.

술찬: 아버님. 저 왔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솔현: 으응? 누가 온 것이냐. (훈이와 담이를 보고) 아, 아니!

훈이&담이&별이&술찬: ?

솔현: 용의...용의 눈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담이: 당신은...우릴 알아볼 수 있소?

솔현: 그럼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용신을 부르는 제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솔현은 백 년 전의 제의를 직접 목격한 인물로, 그 때 강림한 용신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남산 소나무의 정기를 받아 지금까지 장수할 뿐 아니라 몸도 건강할 수 있

있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술현은 담이에게 술값을 건네주고, 셋은 마지막으로 제의에 필요한 물건, 즉 주문이 적힌 종이를 찾으러 나선다.

담이: 마을의 도서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직 그 곳에 있을 거야.

별이: 당장 가요!

도서관에 간 셋은 주문이 적힌 종이를 찾지만, 고대의 언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가 없다.

훈이: 아 이거! 하늘에서 아빠가 읽는 걸 봤는데...난 모르겠어.

담이: 이걸 어떻게, 지금은 사라진 언어일 텐데. 방법이 없을까.

별이: 음...증조할머니께 여쭙보는 것은 어때요?

담이: 그래! 어머니께 부탁드려 보자.

셋은 도화에게 찾아간다. 그러나 도화 또한 고대의 언어라며 읽는 데에 난색을 표한다.

도화: 이걸 백 년 전 제의에 쓰이던 언어란다. 아쉽게도 나는 구경만 했지, 제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읽지 못한단다.

셋은 함께 고심하다가 술현이 그 때도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다시 술현을 찾아가기로 한다. 먼 길을 따라 남산에 간 셋. 그러나 소나무는 죽어있고 사람들은 온데간데없다.

훈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담이: 아무래도 이걸...이무기의 흔적 같아. 이곳의 정기까지 흡수한 것 같구나.

별이: 어머,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죽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담이: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훈이: 맞아. 그 때 나한테 활 쏠 때 봐. 거침없이 당기더라고.

담이: 아무튼, 일단 강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태화강변으로 되돌아온 그들. 도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듣는다.

도화: 들었니, 애들아? 글썄 이무기가 온 신성한 곳의 정기를 모두 흡수하고 있단다.

훈이: 정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화: (안타까워하며) 남산, 무룡산, 신성천 모두 이무기가 휩쓸고 지나갔다는 소문이 팽배 하단다.

담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 남산의 신성한 소나무는 이미 말라비틀어져 있더군요. 신성천도 말랐다니, 큰일이군요.

별이: 그럼 이제 그 물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이라는 소린가요?

훈이: 제의를 열어 다시 물을 띄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겠지.

담이: (막막한 듯) 그렇다면...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훈이: (주위를 집중시키며)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조용!

저쪽 끝에서 누가 뛰어오더니 눈앞에서 쓰러져 헉헉거린다.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 그는 술찬이다.

훈이: (다급하게) 술찬!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별이: 일단 치료부터 해요!

술찬: 헉헉, 아...아니, 난 괜찮습니다. 헉, 아버지가 잡혀 있어요. 이무기에게 아버지가, 크, 크, 잡혀 있단 말입니다. 제의를 열거면 빨리 열어 아버지를 풀려나게 해 주세요. 어서요!

담이: 알겠소, 일단 진정하시오. 우리도 제의를 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답답할 뿐.....

별이: 술찬! 혹시 아빠께 들은 것 없어요? 제의를 열기 위한 주문 같은 거요.

술찬: 주문? ...그런 것은 알지 못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는 있는

데…….

훈이: 바로 그거야! 술찬, 어떤 노래야? ‘

술찬: 그건 말이지.

술찬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여루여루 들건산 무룡산신을 울리자
 여루여루 어새미 용왕님을 울리자
 은하수를 당기고 천지수를 당기자
 동해수를 당기고 황해수를 당기자
 천년수를 당기고 만년수를 당기자
 회야강을 당기고 형산강물 당기자
 동천물을 당기고 서천물을 당기자
 용당소물을 당기고 물청지물을 당기자
 백룡담물을 당기고 용금소물을 당기자
 전산의 산신님 무룡산의 산신님
 이어주소 이어주소 이새미물을 이어주소♫

별이: 이 노래라면...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불러 주던 노래잖아!

담이: 맙소사, 내 머릿속에서 항상 맴돌던 그 음악이 이것이었다니.

훈이: 나에게도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야. 아기였을 때..?

도화: 이젠 사람들이 제의할 때 부르던 노래란다. 그 노래가 이렇게도 불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구나.

노랫가락이 커지고, 강바닥에 파묻혀 있던 금줄이 꿈틀대며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다가온다. 강을 가로질러 금줄이 곳곳이 서고, 훈이와 담이는 금줄의 곳곳에 솔잎을 꽂는다.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새미를 채워주소 효문정을 채워주소
 냉청청 채워주소 옥수청청 채워주소
 출렁출렁 채워주소 가득가득 채워주소
 사시장철 넘쳐주소 천년만년 넘쳐주소

생명수가 넘쳐주소 불로수가 넘쳐주소
부귀수가 넘쳐주소 영화수가 넘쳐주소♪

금줄의 한 가운데, 신성천과 물청청의 깨끗한 물이 담긴 병을 왼쪽으로 틀어 묶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모인다.

담이: 이 징조는...설마!

훈이: 드디어 만나는 건가, 나쁜 이무기 같으니라고. 어서 나와!

별이: 맞아. 어서 나와!

하늘 뿐 아니라 주변까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서쪽에서 기분 나쁜 빛이 번쩍인다. 그
곳에 이무기가 나타난다.

도화: 맙소사...백 년 전의 그 용신이 다시 나타나다니. 호수룡이었던 분께서 어찌 저렇게
되었을꼬.

이무기: 누가 감히 내 힘을 뺏으려 드는가. 네놈들이냐?

훈이: 네가 그 이무기로구나. 널 봉인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훈이는 용기를 꺼내 이무기에게 비추지만, 이무기는 코웃음만을 칠뿐이다.

이무기: 푸하, 감히...감히! 별레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날 봉인하려고! 보아하건데 그 용
기는 용신이 만든 것이렷다!

훈이: 그래, 나는 용신 호법룡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담이: 나 역시 반신반인으로, 훈이와 같은 부모를 두었다. 당신이 호수룡인가, 아직 과거
의 원한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군.

별이: 아저씨에게는 나쁜 기운이 느껴져요.

이무기: 호법룡의 자식들이라고? 그걸 말하다니. 죽고 싶어 안달이 난 게로구나.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죽어라!

이무기는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고, 담이가 지팡이를 휘둘러 그것을 겨우 막는다.

담이: 크흑, 강하군.

별이: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무기: 그래, 저 녀를 먼저 죽이면 되겠군. 에잇!

이무기는 별이를 쉴 새 없이 공격한다.

훈이&담이: (방어하며) 별이는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의 계속되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 담이가 일격을 얻어맞고 쓰러진다.

훈이: (팔을 들어 올릴 힘도 없다) 헉헉, 나까지, 쓰러뜨리기 전에는, 결코 별이를, 건드릴 수 없다.

이무기: 그래? 너까지 죽여 버리면 저 하늘의 호법룡이 아주 슬퍼하겠지. ㅋㅋㅋ. 난 온 세상의 정기를 흡수했다. 너 같은 건 내 상대가 될 수 없어.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훈이: 말이 많구나, 이무기.

이무기: 죽어라. (훈이를 공격한다)

그 순간, 도화가 달려들어 온 몸으로 공격을 막는다.

훈이&별이: 안 돼-!!

도화: 으...으..

이무기: (비웃으며) 아니, 이게 누구신가. 백 년 전에 보았던 그 인간, 아니 정령이었나. 아무튼 땅의 자식이로군. 아직까지 그 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니, 의외로구나. 이제 운명에 따라 죽어라.

쉬잇-

이무기: 음, 뭐냐!

술찬: 헉, 헉...빚나갔군.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

이무기: 아버지라? 아, 그 놈. 이미 없애버렸지.

술찬: 뭐...뭐라고? (분노하여) 이 나쁜 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술찬은 이무기에게 화살을 쏘고 달려든다. 그 사이 별이는 강 한가운데로 가 물병을 뒤집는다. 이로써 신성천과 물청청의 물이 강물에 혼합되어 의식이 완성된다.

칼칼칼...칼칼...

이무기: 네놈도 아버지처럼 없애주... 악, 크악! 이놈들! 안 돼, 물의 정기가 빠져나간다!

칼칼칼...칼칼...

별이: 좋았어!

이무기: 이렇게 끝날 성 싶으냐! 난 아직도 강하단 말이다! (변신한다)

이무기는 본체로 현신하고, 큰 뱀으로 변한다. 이무기는 사방으로 공격을 날리고 여기에 술찬이 얻어맞아 쓰러진다. 한편 담이가 정신을 차리자 훈이가 부축하여 둘이 함께 이무기를 공격한다. 밤새 계속되는 전투, 점점 힘이 빠지는 이무기는 별이를 먼저 공격하려 드나 별이의 반지에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별이: 악! (눈을 감으며 반지를 내밀자 반지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이무기를 쏜다)

이무기: 크악! 정령의 반지인가, 그래도 한 가지 재주는 있군.

담이: 어딜 신경 쓰냐! 이거나 먹어라!

담이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그새 불어난 강물이 이무기를 덮친다. 동시에 훈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성천의 물이 담긴 병을 이무기에게 던지고, 병이 깨지며 이무기는 쓰러진다. 인간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이무기 앞에 훈이와 담이가 선다.

훈이: 헉, 헉... 드디어 봉인할 수 있겠군.

이무기: (다급하게) 잠깐! ...훈아 답아, 난 너희들의 삼촌이란다. 나도 용신이었던 말이다.

훈이: (당황해하며) 무...무슨 수작이야.

담이: (단호하게) 훈, 들을 것 없어.

이무기: 단지 나는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뿐이었다.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단다. 정말이야.

훈이: (망설이며) 하...하지만.

담이: (분노한다) 닥치시오! 당신이 해 놓은 이 악행을 두고 어찌 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가! 백 년 전에도 그랬는가!

이무기: 훈아! 내 조카. 착하지. 삼촌을 한번만 살려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훈이: 삼촌이라니, 당신은.....

그 순간, 이무기가 최후의 발악으로 온 힘을 다해 훈이를 공격한다. 훈이는 얼떨결의 자신의 콤플렉스인 원팔로 그 공격을 막는다. 그 순간, 훈이의 흉터가 크게 빛나며 호법룡이 걸어 두었던 고대의 마법이 발동된다. 이무기는 백 년 전에 자신이 공격했던 힘과 지금 자신이 공격했던 힘을 모두 스스로에게 되돌려 받고 마침내 쓰러진다.

번쩍!

이무기: 으, 으악!!!

훈이&담이&별이: !!!!!...

...털썩.

별이: 지금이야!! 훈아, 어서!

담이: 훈, 지금이다!

훈이: 알겠어!

훈이는 이무기에게 웅기를 가져다 대고, 이무기는 웅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봉인된다.

별이: 드디어...끝났어.

담이: 이제는 쉴 수 있는 건가.

훈이: 하아...아! 엄마! 솔찬!

훈이와 담이와 별이는 도화와 솔찬을 부축하여 마을로 이동한다. 강물은 점점 물꼬가 트이고, 동쪽에서 해가 뜬다.

몇 달이 흐른 후, 강물은 예전처럼 가득 차 흐르고, 푸른 땅에는 생기가 맴돈다. 동식물은 조화롭게 뛰어놀고, 사람들 또한 건강해져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다.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훈이: 담, 별아! 같이 하늘로 올라가 살자. 응? 아빠도 보고, 엄마도 올라가시잖아.

담이: 훈아. 아니,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 물론 하늘도 좋지만 나는 이미 이곳에서 백 년을 살았단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떠난 자리를 내가 맡기로 했단다.

별이: 훈아, 나도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때 보았어. 아파하던 사람들과 메말랐던 땅.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나만 올라갈 수는 없어. 난 이 땅을 사랑해. (눈가에 물이 맺힌다)

훈이: 그래...맞는 말이야. 어라, 별이 너 우는 거야?

별이: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우, 울다니. 울긴 누가 울어! 훈이 너, 올라가서 안 내려오기만 해봐. 내가 찾아갈 거야!

훈이: (웃으며) 알았어 알았어. 매년 제의마다 아빠와 함께 내려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담, 할아버지 같은 담이도 날 기다려 줘.

담이: 그런 걱정은 말고 얼른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도록 해.

훈이: 응. 그럼 갈게.

도화: 다음 해 제의 때 보자꾸나 아이들아.

담이&별이: 잘 가-

도화는 싸움에서 얻은 상처가 커 하늘에서 살기로 한다. 훈이는 도화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담이와 별이는 땅에 남기로 한다. 담이는 어머니 도화의 뒤를 이어 강을 다스리기로 하고, 별이는 그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로 한다.

일 년 뒤.

아저씨: 어-이! 그 쪽이 아니야! 솟대는 여기라고!

청년: 영차, 영차! 금줄을 이쪽으로 옮기자!

여인: 음식은 다 날랐어요? 아유, 아직 멀었네.

울산 태화강변에서는 해도 뜨지 않은 첫새벽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 기둥이 세 개 세워지고, 기둥의 꼭대기에는 진짜처럼 만들어진 새가 조각되어 있다. 평상에 음식이 하나 가득 놓이고, 강변에는 술罈과 물병이 걸린 금줄이 쳐진다. 강과 우물마다 사람들이 물병과 물동이를 이고 다니며 노래를 부른다.

♫여루여루 들건산 무룡산신을 울리자
여루여루 어새미 용왕님을 울리자
은하수를 당기고 천지수를 당기자
동해수를 당기고 황해수를 당기자
천년수를 당기고 만년수를 당기자
회야강을 당기고 형산강물 당기자
동천물을 당기고 서천물을 당기자
용당소물을 당기고 물청지물을 당기자
백룡담물을 당기고 용금소물을 당기자
전산의 산신님 무룡산의 산신님
이어주소 이어주소 이새미물을 이어주소♫

강물이 거세지고, 솟대가 흔들린다. 동쪽에서 해가 비추기 시작하고 동시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답아-!, 별아-!”

-Fin-